

국립 전북대 병원에 법당 생긴다

전북신행단체, 대책위 구성 후 건립 요구

전국 국립대 병원중 전남대와 함께 유일하게 법당이 없던 전북대 병원에 불교 신행 시설이 설립될 것으로 보여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전북불교신도회, 조계종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익산불교신도연합회, 전북불교시민연대 등 18개 신도 포교단체들은 6월 11일 전북불교회관 3층 지장전에서 전북대병원 법당건립 대책위(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법당 불사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이날 모인 신행단체들은 그동안 법당 건립 불사를 추진했으나 전북대병원측에서 동의만 하고 구체적 계획은 제시하지 않아 불교계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병원법당은 불자 환우는 물론 가족들이 장시간 수술시간에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의지할 수 있는 기도처가 필요하다"며 "우선 법당 건립의 당

위성과 요구안 및 전북 불자들의 의견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고 건립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등 상급기관 등에 시정을 촉구하는 등 건립 불사를 위해 모든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10개 국립대 병원 중 전북·전남대 병원만 법당 없어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불교계에서 이웃종교들에 비해 봉사활동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 호스피스, 간병봉사 등 신행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에도 팔을 걷어 부치기로 입을 모았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전북대병원 김종

우 기획예산과 기획팀장은 본지와외의 인터뷰에서 "국립 전북대 병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불교계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불교 법당 건립 계획은 이미 확정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계획은 계속 회의를 통해 조율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김 팀장은 또 "병원내 공간 부족으로 인

병원측 "법당건립 계획 이미 확정" 리모델링 완공시 공간 마련

해 적당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불교계 시설을 제공하지 못했지만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진행중인 병원 리모델링 계획이 완료되면 다른 종교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법당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불교계측에서 다양한 지원봉사나 병원내

복지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를 통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 10개 국립대 병원 중 종교시설이 없는 곳은 한 공간을 각 종교가 공동사용중인 강원대 병원 유일하며, 불교계 시설이 없는 곳은 전남대 광주 병원과 전북대병원 2곳이다.

이중 문제가 되고 있는 전북대 병원은 연간 600만명의 환자와 가족이 이용하고 있는 전북지역 대표적 병원으로 현재 개신교와 천주교 시설은 있지만 불교계 시설이 없어 불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대책위 관계자는 "일단 전북대병원측의 법당 건립의사가 있다는 사실은 환영한다"며 "병원 리모델링이 완공대까지 오래 걸리는 만큼 임시 공간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에 병원측과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어린이·청소년 포교 우리가 최고”

나무숲, 광주지역 어린이·청소년 포교 앞장서



나무숲이 진행하는 '자따따'에 참가한 학생들이 자연음식을 맛있게 먹고 빈그릇을 보이고 있다.

최고 불교계가 어린이·청소년 포교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어린이·청소년 공동체 나무숲(대표 무등, 이하 '나무숲')이 모범 단체로 주목받고 있다.

나무숲은 지난 1년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나무숲은 자따따(자연따라 마음따라), 어린이생태학교, 청소년 지리산마음 캠프, 선재역사문화탐방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다양한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나무숲, 1년간 10여 차례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실시 자따따, 생태학교, 지리산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기

무등 스님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세상의 다양한 주인공으로 울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제적인 역량강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나무숲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사찰과 전문문화원을 연계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프로그램 참가자 학생들은 휴대폰과 게임기 등을 휴대할 수 없고, 자연 음식섭취 등 자연의 문화·환경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높다.

대표적 프로그램인 자따따는 1박 2일로 지난 3월 24일 상계사를 시작으로, ▷4월 28일 해인사에서 진행됐으며, 앞으로 ▷6월 23일 대구 유가사 ▷9월 8일 고창

선운사 ▷10월 27일 안도 신흥사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각 사찰의 특성에 맞춰 웰빙트레킹, 팔만대장경 둘러보기, 원자력발전소 탐방, 우포늪 탐방, 동학 농민혁명지 탐방, 장보고유적 보기 등이 진행된다. 또 걷기 명상, 오감체험, 공동체놀이, 다도, 전통놀이, 요가, 108배 등 환경과 전문문화체험도 실시된다.

자따따에 참여한 김진영(12) 군은 "부처님의 욕심 없고 한없이 인자하신 모습이 인상 깊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미래에는 부처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무등 스님은 "행사 사찰 신도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의 자녀들도 참가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밖에 나무숲에서 4년 넘게 진행해온 어린이 생태학교는 녹색에너지체험관, 에코트레킹, 우리밀 쿠키만들기, 광주환경기초시설 견학, 명상, 다도, 오감체험 등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7월 27~29일에 장성 백양사, 11월 10~11일 광주 중심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학부모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가족단위의 먹거리 중요성과 소통을 일깨워 준다.

또 청소년들을 위해 8월 3~5일까지 제1회 청소년 지리산마음캠프를 진행한다. 지리산 노고단에서 천왕봉까지 지리산 종주를 통해 청소년들의 국토사랑을 일깨워 준다. 캠프는 집과 학교, 학원에서의 답답한 생활을 탈피해 탐험과 모험심, 자립심 등을 길러내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나무숲은 6월 17일 후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후원에 모인 기금은 어린이·청소년 포교 활성화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주민 동의없이 폐기물 처리장 설치”

나주 죽림사·지역주민 설치반대... '강력 대응 할 것'

1600년 역사를 지닌 나주 죽림사(주지 범룡) 입구에 의료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사찰과 주민들이 반대에 나섰다.

죽림사와 나주 남평읍 풍림2구 주민들은 "전남산업(대표 이갑순)이 사찰인근 남평읍 풍림리에 '의료 폐기물 수거 및 저장 창고' 설치를 주민 동의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에 나서고 있다.

범룡 스님은 "의료 폐기물 수거 및 저장 창고"가 들어서면 마을주민뿐 아니라 사찰을 찾는 신도와 참배객들에게 큰 장애가 될 것이다"라며 "특히 민간사업자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염오시설을 추진하고 있어 더 큰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남평읍은 영산강의 지류인 지석천이 2번에 걸쳐 범람해 농도가 침수당한 적이 있다"며 "시설 설치 후, 또 범람이 발생하면 마을에 심각한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전남산업은 나주 남평읍 풍림리 일대 863㎡에 의료폐기물 보관창고와 사무실 및 주차장을 계획하고, 매일 50톤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을 건립 예정 중이다. 나주시는 이미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불허했지만, 전남산업은 나주시의 이같은 입장에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한 상황이다.

'의료 폐기물 수거 및 저장 창고'는 광

주지역 전남대병원, 광주기독병원 등 4곳의 대형병원에서 나오는 의료 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이다.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들은 인체조직, 실험동물 사체 등 인체 감염을 유발하는 폐기물들이 포함돼 사찰과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황인열 풍림 2구 이장은 "풍림지역은 어느 농촌지역과 달리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딸기, 채소, 한라봉을 생산해 대도시에서 판매하는 지역이다"라며 "광주지역 대형 병원의 의료폐기물 처리장소가 설치된다면 누가 농산물을 구매하겠느냐. 마을에 존폐가 달린 만큼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주민들은 남평읍 이장협의회와 주민 800여 명의 서명을 통해 영산강 유역 환경청과 나주시청에 ▷주거지역 마을입구 ▷감염성 의료, 유해 폐기물 유출시 인체 감염 ▷지역의 노약자 요양원 시설에 감염, 정신적 피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 단지로써 생산 가치 절하 ▷지석천 및 수계의 오염 ▷문화재 보호구역인 죽림사의 경관 훼손 및 가치절하를 이유로 반대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앞으로 죽림사와 주민들은 관련 전문가와 법률자문을 통해 설치반대활동을 진행해갈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청소년들의 잔치하미당 '청소년 모악축제' 개최 전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형)가 6월 9일 김제 금산사에서 '청소년 모악축제'를 개최했다. '나의 삶을 자비롭게, 온 누리를 향기롭게' 라는 주제로 진행된 음악놀이경연은 사물놀이, 국악, 전통악기, 노래, 단체댄스, 마술, 그룹사운드 등 다양한 경연이 펼쳐졌다. 이번 경연에서는 임실 지사중 사물놀이 팀과 중앙여고 그룹 댄스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사진은 임실 지사중 사물놀이 팀의 공연 모습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산사에서 태권도로 심신단련 하다

무주 안국사, 태권도 템플스테이 실시

태권도와 함께 하는 특별 산사체험이 무주 안국사(주지 보산)에서 진행됐다. 안국사는 6월 9~10일 태권도 수련을 비롯해 예불과 108배, 참선, 발우공양, 다도체험, 연등만들기, 탁본, 산사문화탐방 등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템플스테이는 중국 등봉사 소림사무술시범단 20여 명이 참가해, 한·중의 전통무술을 비교·체험해 보는

기회도 마련됐다.

안국사 보산 스님은 "행사는 산사의 고요함 속에서 가족과 자신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심신을 단련해 활력을 얻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이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2013년 안국사 인근의 자연경관을 연계해 '무주 태권도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으면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기우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전생치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여래후 금강진법사구계인 수,육,보,영으로 영육이 합일 문자와 형상과 염불,독경,참선수행 등 보이는 세상을 초월 성품이다니는 현관을 찾아 비구니와 보살들도 성불득도 해안을 열어 부처나 제왕이 되는 타심통대법회

지구촌 천지개벽으로 동방의 빛이 지구촌을 비추니 대한민국의 운이 전세계를 비추어 만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하늘이 내리신 열과 혼인 말과 글의 28자를 아는 시대가 오는 것이며 가장승제를 뺀 24자인 것이다.

◆중생들은 과거에 업장과 지은 공덕이 부족 수명이 짧고 병마로 고생하며 비구 비구니 중생들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업으로 성불 득도가 없으며 열불 목탁 화두 정진 수행으로는 자성을 볼 수 없기에 무어 열반 뒤에 제도한다 하였고 방편 불교 후 천지공사 지계 수복자에 의하여 진법사구계인 수육 보 영 사계와 진중도 민족업, 불천영, 9자인 사구계로 유훈선이 하나 되는 중생들을 제도 세계 평화 불국 정도로 광신 유포하는 천하 제일의 대 비밀자인 것이며 부처님의 초능력으로 천지공사 및 명부공사하여 생명의 문인 현관찾아 성불 득도하여 부처와 제왕이 되는 것이다.

천지 공사란
 천은 평생해도 안되는 성불의 심중자 태양 입법계 자성문인 마음이 자신을 구하는 것이고, 지는 부모님에게 육신을 받은 공덕과 진법을 값으려고 육신의 법당에 들어가는 현관에 주인 만나는 문을 두드려야 유아독존 나를 찾아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고, 중생대운으로 거흔 금흔 매흔

공사는 찾고 있는 내부처가 현관을 만났으나 폐쇄되어 각종 파종류와 귀신 마귀들이 침범 못하도록 하는 공사이며 열불, 독경, 화두, 정진 등 수행으로는 고행인 것이며 출입문은 오직 현관뿐인 것이며 자성이 다니는 문을 찾는 것이다.

명부 공사란 원시천존 도덕천존 영보천존에서 자신의 명을 지키는 명부 운명을 관장하는 삼업은 조상업, 전생업, 금생업을 경신일 자오시에 소울을 우는 주문에 의하여 천상보살과 이구지 보살과 환희지 보살이 천상 신장들에 의하여 진업, 죄업, 구업으로 자신이 부리는 신은 무당, 만신, 스님, 목사, 신부, 철학, 예언 등의 신을 자손으로 가지않고 자기 대에서 해원상생하여 막힌 자성에 문현관을 열어 성불득도 제왕으로 사주팔자와 운명을 바꾸어 주는 타심통 평생에 한번 만나는 법회에 동참하시어 종교 종파 국가를 초월

성불 득도하여 신성,도인되어 생애에 최고 스승되어 마음 평화와 행복은 오직 천지공사 해인도법인 것대로 삼마구니와 삼사자를 상생 제도하는 비법은 오직 진대인의 원방각 해인도법의 잣대인 것이다. 오직 수행기도 마장은 삼라만상 괴멸되는 것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욕심이 아상을 만들어 보이는 허상에 목을 매기 때문에 귀신 잡신 빙의의 신에 지고 마는 것은 악연으로 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중생과 비구니 보살들에게는 아상과 죄과 많으므로 성불득도는 없느니라하시고 열반후 방편 불교가 끝나 지계수복자에 의하여 금강 진법사구계인 수육보영으로 영과 육이 합일되어 성불득도 하는 천하제일의 부처나 제왕이되어 태양의 빛으로 해안을 여는 기법 일체 일어 심인 타심통인 것이다.

■입제일 - 2012년 6월 27일 윤 5월8일 수요일 해시
 회향일 - 2012년 6월 28일 윤 5월9일 목요일 해시
 ■동참비: 천지 명부공사 합 150만원 49재는 성불득도 및 생명연장전수
 ■부 및 개인 33만원 49재 7.7재 살아있는 생전예수재 기도비
 ※ 본 도량은 석가세존상 만불을 모신 기도소성취도량입니다.

농협 029-01-167866 관현영(태일)
 상담전화 : 02)821-6622, 010-3239-3110
천지공사 응조 미륵 달마 경신 도통회
 설립 세계불교 달마중 흥분산 환성 태일대중사합장
 부산 법회 : 사단법인 대한불교 달마조계종 경문사
 상담전화 : 051)635-3110, 010-8533-1601